

휴거의 급대로 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느니라

작성일: 2010. 1. 12. ~ 1. 25.

작성자: 김혜경

* 하나님 말씀 *

천상 천국은 나의 나라이니

그곳에서는 육신의 삶과는 다른 삶이 이루어지느니라.

언제나 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가운데에 웃음꽃이 피어나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니라.

휴거한 인생들의 영은 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이니,

그 곳에서는 너희의 행함이 바르게 되어

온전히 나에 속한 행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느니라.

흑암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

너희 마음의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갈급함이
나로부터 보내어지는 사랑의 세계를 강력하게 빨아
들여

육신이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함을 입게 되나
니,

그곳에서의 삶은, 온전히 선(善)의 나라에 합당한
사랑의 행실로만 이루어지게 되느니라

천상 천국은 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니,

그 외에 또 다른 천국이 있으며,

또 또 다른 천국이 있으며

층층 만 층 구만 층이라 하였나니

그 많은 급들에 따라서 부여되는 천국이 따로 있느
니라.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는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
하니라.

부지런히 자신을 갈고 닦아 나의 성에 들어오게 만
들여라.

그러하면 내가 기뻐 너희들을 맞이할 것이니

그러한 자의 숫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니

마음껏 도전하여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할지이다.

내가 그것을 기뻐 기다리고 있느니라.

낙원 천국이라는 곳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행실을 변화시켜 거하게 되는 곳이며

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한 몸부림의 장이 될 것이
니라.

끊임없는 교육과 실천으로 모든 앞날을 예비하는
곳이니

그곳에서도 나의 나라로 휴거되는 자들이 극소수니
라.

나의 뜻에 합한 자가 몇이겠느냐.

그러하니 부지런히 자기를 만들어라. 사랑한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상천국
에

바로 휴거되어 들어가는 영체도 있나요?”)

이제 곧 다가올 재림의 역사 가운데에

사랑하는 자들의 영체는 그에 합당한 구원을 이루
리라.

휴거가 필요하니

그들의 영의 수준에 따라, 그 급에 따라

내가 그 형체에 맞는 변화를 일으킬 것이니라.

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영체가 있느냐고 묻는구나.

그런 자들이 있으니 나와 합한 자이니라.

그러한 자들은 재림의 때에,

나와 연결된 많은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나라에 바로 입성하게 되느니라.

이들의 행위는 나의 사랑을 입기에 합당한즉

내가 그들의 영체를 변화시켜

나의 나라에 합당한 영체로 만들어 올리울 것이니
라.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온전함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러할 수 있느니라.

나와 일체된 자의 육신은

내가 원하는 급의 온전한 육신이 된즉,

그로 통하여 만들어진 영체는

나의 나라에 바로 들어와 살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연인이 되느니라.

그러하니 그만한 의와 영급이 되어야 하고,

나와 심정이 통하며,

나의 심정과 그 모든 사랑의 세계들을

일체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극소수의 사람들이니,
나머지는 자신의 그 사랑의 수준에 따라, 그 급에 따라
그에 맞는 합당한 천국의 그 위치에 들어가
그곳에서 날마다 거듭나는 삶이 진행될 것이니라.
그곳에 맞는 성격의 영체로 변화될 것이니,
영체는 그 모든 수준에 따라서
형성되어가는 완성도가 다르기 때문이니라.

그러하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앞날을 준비하고 예비하여
나와 심정이 하나 되고, 사랑의 세계가 밀접하여,
때려야 뚫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너희의 할 도리니라.
그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천국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의 성에 바로 입성하게 되나니,
내가 이를 기뻐하여 내 사랑 안에 맞을 것이니라.

재림의 때에 휴거를 받아
나의 나라, 천상 천국에 들어오는 자가 극소수니,
이들이 그러하게 됨은 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온전히 그 삶이 나와 합하여짐이니
그러한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들은 나의 뜻을 받아 온몸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나를 섬기는 것에 인생을 바친 자들이니라.
내가 그로 정결함을 입게 하여
나의 나라 안으로 인도할 것이니
변화된 영체는 나의 것과 흡사하여 아름다움을 띄고
모든 흑암의 문은 것들을 떨쳐내고
이곳으로 입성하게 되느니라.
이들의 행위는 정결함을 받아
세상의 어떠한 악한 것도 묻어 있지 않으니,
내가 나의 능력으로 완전함을 보일 것이니라.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 재림을 맞은 영들은
그 급대로 또 다른 천국에 배치가 될 것이니라.
천 년 동안 준비하는 자들의 장소가 따로 있으니
그곳에 있는 자들은
재림의 역사 가운데에 참여한 바 되었으나
그 사랑에 부족함이 있어
더욱 교육받고 그 마음의 상태가 부활되지 않으면

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느니라.
그곳에서 나의 교육을 받아
천 년 동안 많은 교육을 통하여
그 다음 나아갈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니라.
준비되고 예비하여 보다 나은 구원을 위해 몸부림칠 것이니
그 전의 천국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자신이 만들어진 만큼 또 다른 천국에 배치가 될 것이니
그곳에서의 차원은
자신의 몸부림의 결과로 결정될 것이니라.
그곳에서도 나의 아들 성자의 분체가 활동하여
많은 교육을 담당할 것이고
또한 천사들이 파견되어 그들의 몫을 담당할 것이니라.
나의 능력이 그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나
자신의 노력과 몸부림으로
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니,
교육에 임하는 많은 영들이 있을 것이나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는 소수가 될 것이니라.

너희 선생은 나를 위한 삶으로 몸을 내어 던졌으니
내가 그 아름다운 행위로 기쁨을 얻었느니라.
그의 갈 바는 나의 뜻한 바 인도함이 있을 것이니
내가 그를 영광의 자리에 앉힐 것이니라.
당연히 나의 나라에 입성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를 위해 많은 것으로 예비하고 있으니
그 아름다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너희들을 바라보는도다.